

치솟는 밥상 물가에 장보기 전 한숨부터 는다

초복 앞두고 육계 가격 지난해보다 30% 가량 급등

배추·참외·수박 등 여름 채소·과일 가격 상승 전망

짧은 장마와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초복(7월 20일)을 앞두고 대표 보양식 재료인 육계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름철 대표 과일과 채소로 꼽히는 여름배추, 참외, 수박 등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여름철 역대급 밥상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7월호 육계·엽근채소·과일'에 따르면 이달 육계 산지가격은 1kg 당 2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월(1563원)과 평년(1743원) 대비 각각 27.9%, 14.7% 높은 수준이다.

육계 산지가격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 수요가 증가하는 초복을 앞두고 상승 추세를 보여 왔지만, 올 들어 유독 높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 1kg 당 1563원을 기록하고 올 1월 1927원으로 급등한 뒤 2월

(1870원), 3월(1953원), 4월(2265원), 5월(2403원)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년 동기 1447~1726원 대비 8.0~56.8%나 가격이 뛰었다.

육계 가격 상승은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및 사육량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브라질 현지 AI 미발생 지역의 육계 수입을 재개되면서 육계 산지가격이 1892원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과 전년보다 비싼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초복'을 시작으로 중복, 말복 등 육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추가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육계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KREI는 육계에 이어 여름 대표 채소인 배추와 대표 과일인 참외, 수박 등도 가격이 상승할 것

로 예상했다.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kg 당 1만 1000원으로 전년 동월(1만 448원) 대비 5.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9596원)보다 14.6% 높은 가격이다.

배추 도매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봄배추 저장량 감소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꼽힌다. 여름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봄배추 생육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이 지속되면서 병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 도매가격 역시 상품 기준 1kg 당 24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월(2300원)보다 4.3% 높은 수준으로 수박 출하량은 1년전과 비슷했으나, 참외 등 대체 여름 과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KREI는 참외 도매가격도 10kg 당 2만 62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6.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올 여름 잦은 비와 폭염으로 채소와 과일 등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배추 가용물량을 3만 5500t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북미 최대 '뉴욕 팬시푸드쇼'서 K-푸드 홍보

aT, 통합한국관 운영...1071만 달러 규모 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월 29일~7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된 '2025 뉴욕 팬시푸드쇼'에 참가해 상담 487건, 1071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협약 16건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뉴욕 팬시푸드쇼는 올해로 69회를 맞은 북미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거래) 식품 무역 박람회로, 전 세계의 식품기업과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는 '식품의 미래를 경험하라'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20만여 개의 제품이 2400여 개 기업을 통해 전시됐다.

aT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인 57개 수출기업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리고, K-푸드를 홍보했다. 통합한국관에서는 다양한 맛의 떡볶이와 떡 등 쌀 가공식품, 야채만두 등 식물성 제품, 기능성 음료 등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시음·시식 행사 및 현지 셰프가 참여한 한식 조리 시연 등을 통해 닭갈비, 김치볶음밥, 유자 코울슬로, 배 슬러시 등을 선보였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우리 식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후계농 육성·콩 비축 물량 확보...농식품부 2차 추경 2934억원

기존보다 1072억원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3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186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72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들은 국산 콩 수매·비축 및 후계농 육성 자금,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용자),

농산업 수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콩 2만 t을 추가 수매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콩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계농육성자금' 2차 보전에도 6억원을 추가한다. 후계농육성자금은 후계농 및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추경으로 추가된 보전금을 통해 1500여명의 청년농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농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해 영농 정

작을 위한 시설투자 및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중소수출업체 경영 안정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에 40억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 예산도 기존보다 5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 중소농식품 수출업체의 운영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남농관원, 국산밀 매입 검사

광주·전남 8900t...황금알 품종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오는 8월 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5개 사군에서 국산 밀 8900 t에 대한 정부비축 매입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국산 밀 사전약정체결 물량은 8900 t으로, 전국(2만 3000 t)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 국산 밀 매입물량은 2022년 6668 t, 2023년 7389 t, 2024년 7420 t, 2025년 8920 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입품종은 새금강, 금강, 백강, 황금알 4개로, 황금알 품종은 올해 신규 추가됐다.

해당 국산 밀들은 출하되기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전품질조사와 농관원의 품위 검사를 거쳐지며, 최종 합격한 밀들을 정부가 비축분으로 매입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남 농관원이 순천시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농관원 제공〉

농진청, 수출용 장립종 쌀 개발 나선다

장립종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 수립...5년 내 품종 개발 목표

농촌진흥청은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는 '인디카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 재배 기술 확립, 품질 관리 및 산업화 지원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연구 사업이다.

장립종 벼는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쌀알이 길쭉하고, 가늘며 찰기가 적은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완성, 수출용 장립종 산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실증 연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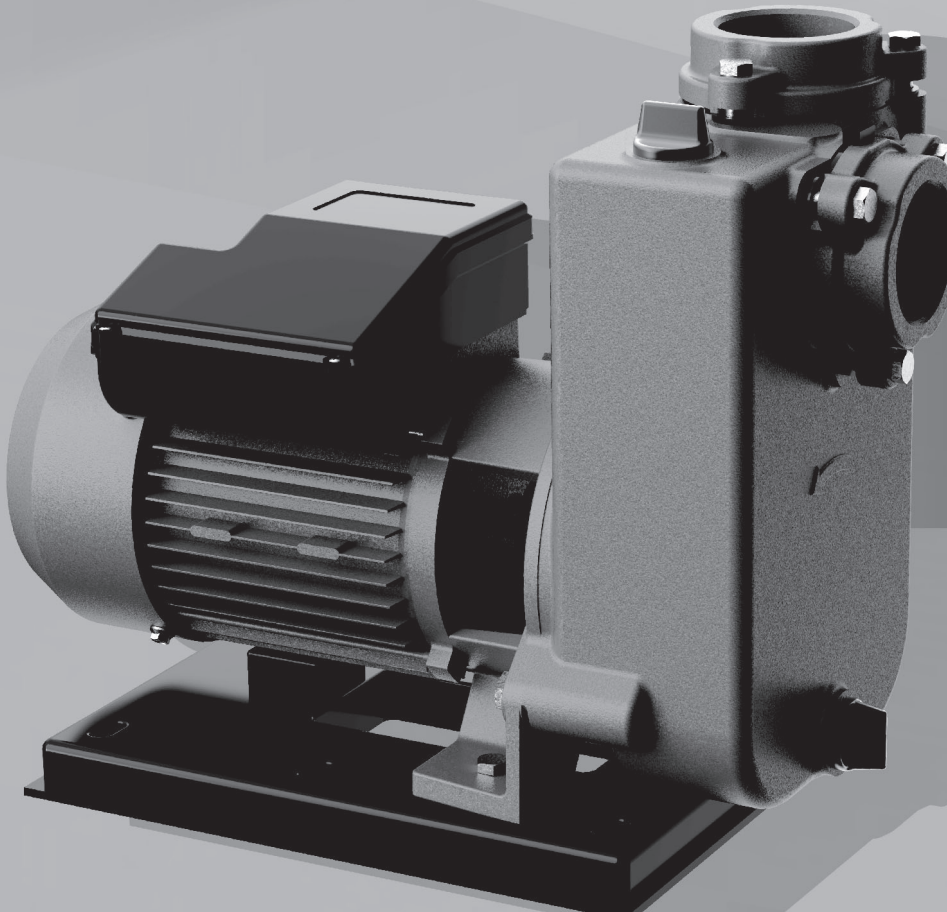
사업에는 국립식량과학원과 대학, 산업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공동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육종, 재배 기술, 육종 기초, 국제 공동 연구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통일형 인디카 장립종 품종이 많지만, 인도의 '바스마티'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립종 쌀과 경쟁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밥쌀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수출용 장립종 쌀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공 밥 수출 기반을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병우 농촌진흥청 남부작물부 부장은 "우리나라 쌀 가공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장립종 품종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장립종 벼 육성 사업이 국내 쌀 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국제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